

연중 제22주일

제1독서 : 신명 4, 1-2, 6-8

제2독서 : 야고 1, 17-18, 21-22, 27

복 음 : 마르 7, 1-8, 14-15, 21-23

쉼정이

“은갓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 1, 17)

강론

세상일과 하느님

서석구 신부/신품 성당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세속의 규범을 잘 지켜야 하고 한편으로는 신자로서 하느님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부담을 갖고 산다. 이중 어느 하나도 소홀하거나 지나침이 있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이 둘의 균형이 서로 보완되어 잘 이루어 질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자주 경험한 실례를 한가지 들어보겠다. 요사이 결혼식은 거의 주일이나 휴일에 이루어진다. 많은 축하객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다. 그전에는 길일을 잡아 날을 정했지만 요사이 젊은이들은 그런것에 의미가 없다. 다행한 일이며 바람직한 추세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주일날 신자들의 결혼식 때문에 미사에 자주 빠진다. 특히 지방이나 먼 곳으로 가야할때는 더욱 그렇다. 결혼은 인류지대사로 당연히 축하 받고 축하해 주어야 할 좋은 풍습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혼을 성사로 정하고 거룩하게 축복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때 미사시간과 결혼시간이 겹쳐 갈등을 느끼는 신자들을 보게된다. 세상일과 하느님의 일에 갈등을 느끼는 신자들에게 작은 정보를 주고싶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당신 본당과 가야할 지역본당의 주일미사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토요 특전미사, 주일 아침미사, 그리고 저녁미사 시간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만 마음을 본다면 미사 참여의 기회는 많이 있다. 정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화살기도나 대송으로라도 주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본당에 나오는 열심한 신자 한분은 결혼식 주례를 자주 선다. 내가 사랑하는 그 신자분은 토요일 특전미사에도, 주일 저녁미사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이웃 성당에 가서 미사를 했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대송이나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지 라고 믿어보면서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빌고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세속일과 하느님의 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싶다.

소리

새로워 지고 있는가

나이 때문에 심심치 않게 입씨름이 벌어지곤 한다. 그 하나로 젊을 때는 서로 나이를 높여서 형님노릇을 하러 든다. 그러다가 문득 시내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 받으면 그제서야 서글픈 생각이 들어 나이를 줄이려 든다. 그러면서 나이를 허투루 먹지는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쓴다. 해가 지나면 어김없이 먹기마련인 그 나이, 우리 교구가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로 설정된 나이가 올해로 회갑을 맞는다.

회갑은 나이를 셈하는 기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흔히들 회갑이 지나면 60을 뺀 나이를 말하기도 한다. 회갑이란 말의 본디 뜻이 그러하듯, 60갑자를 한 바퀴 돌고 난 새로운 시작이 그 큰 뜻이라서 그러는 모양이다. 지금 우리 교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다.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60주년의 주제를 설정하고 우리의 내적 성찰에 마음을 쓰며 준비해왔다.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새로운 변화를 말이다.

오늘부터 4주 뒤면 우리 교구의 회갑잔치날인 신앙대회가 열린다. 그러니 남은 이 4주 동안 날로 새롭게 달라지는 우리를 점점하는 일 못지 않게 이 지역사회에 살아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순교자 현양극 「님이시여 사랑이시여」를 통해서, 또 6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통해서 말이다. 이 일들은 우리 모두의 기도와 참여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甲)

쉼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기쁨의 샘

8. 롯 기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롯기는 판관기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 살았던 에브랏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모압 여성인 주인공 롯에 대한 짧은 얘기(4장)가 전체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한 여성의 선량한 품성과 희생심을 주제로 하는 책인데 판관 시대의 일화로 소개되고 있다. 내용이 워낙 짧아서 단숨에 읽을 수 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성서 저자가 이 책을 후대에 전한 까닭은 롯이 예리고의 라합(여호수아 2장)처럼 - 물론 라합보다는 훨씬 덕성스러운 여자였지만 - 이교도의 신분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마태 1, 5)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목가적(牧歌的)인 일화를 끝으로 성서는 파란만장했던 판관들의 시대를 맺는다. 이어서 그보다 훨씬 극적이고 희비가 교차되는 왕정시대가 막을 연다. 모압출신인 롯은 선민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다윗왕의 선조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누구나 당신께 신뢰를 두는 이에게 너그러우시고 이방인에게도 무한히 자비하신 분이시다. 또한 롯기에서는 가정 안에서의 따뜻한 마음씨나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입장도 높여 주고 있다. 그러나 롯 이야기의 중심은 충실성을 기리는 데 있다. 하느님에 대한 충실, 율법에 대한 충실이 나오미와 롯의 결단과 보아즈의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이며 하느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충실한 자에게는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것이다.

등장 인물의 이름에도 뜻이 있다. 엘리멜렉 - 나의 하느님은 왕, 마홀론 - 병(病), 길론 - 약(弱)함, 롯 - 위로하는 벗, 나오미 - 유쾌하다, 귀엽다, 마라 - 괴로움, 보아즈 - 힘 있는 자, 오벧 - 주님의 종

덤으로 받은 선물

전 율리오/노송동 성당

팔십이 되신 어머님께서 성서를 읽고 싶는데 눈이 어두워져 읽을 수 없다고 불평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글씨가 큰 신약성서를 사다드렸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건강과 시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큰 글씨로된 성서도 잘 읽지 못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님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어머님의 영적 갈망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며칠을 생각한 나는 어머님께 직접 성서를 읽어드리기로 했다.

저녁 밥상을 물리면 텔레비전이고 신문이고 다 제쳐놓고 어머니 방으로 건너가 하루 2시간씩 큰소리로 성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머님앞에 무릎꿇고 앉아 매일 2시간씩 성서를 큰소리로 읽는다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나는 몸이 아프다는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머님방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다. 그럴때마다 어머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마당을 서성이며 헛기침을 하셨다. 성서읽는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머님을 편히 주무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하는 수 없이 성서를 다시 읽어 드리는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님은 밤마다 내가 읽는 성서 소리를 들으시면서 잠이 드셨다. 어머니가 잠이 드시면 나는 녹음기를 켜놓고 성서를 읽었다.

어머님 앞에서 한 시간, 녹음기 앞에서 한 시간, 이러기를 무려 석달 보름, 나는 구약과 신약을 통독하며 어머님과 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시간을 덤으로 받았다. 실로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더할 수 없는 큰 선물이었다. 먼저 무언가를 줄 때 더욱 많이 받는 기쁨까지도…….

침대를 전시장

◎ 목재 침대

- 싱글 : 110,000원
- 더블 : 160,000원
- 쿼 : 300,000원

이 레 가 구 산 업

김 미 숙(안젤라)

완산구 삼천동(풍남중 건너편)

☎ 225-2368, 5328

EAST PAK JAN SPORT 전북대점

수입학생가방, 모자, 악세사리

덕진성당 옆

김 옥 희(안나)

☎ 255-4422 · 251-3330

이사짐 및 용달

사다리차 · 인부대기

1톤 · 4.5톤 · 5톤트럭

251-2024

☎ (0652) 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고려주단 확장이전

한 북 · 이 불

김 삼 레(소 피 아)

기린오피스텔 옆

☎ (0652) 88-1902

잠깐

한국의 「몽마르뜨르」 치명자산 성지조성에 작은 손길을!

“세계 교회사의 진주”라 불리는 동정부부 순교자(이루갈다, 유요한)와 호남의 첫 신자요 사도로 존경받는 그 부친 유향검(아우구스띠노) 등 7인의 고결한 가족 합장묘가 모셔진 순교자 언덕(몽마르뜨르) 치명자산 단장이 한창이다.

지난 94년, 온 교구민의 정성으로 해발 300m 가파른 산정에 중세 수도원 같은 아담한 기념 성당이 세워졌는가 하면, 바위 벼랑을 따라 설치된 「골고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중턱에 마련된 교구 성직자 묘역 등 비록 작은 산기슭이지만 그야말로 보배로운 우리들의 성지요 성산(聖山)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전국 제일의 성지, 나아가서는 세계적 성지로도 손색이 없을 이곳, 더구나 지척에 한국 최초의 순교지이며 아름다운 문화재 성당인 전동 성당이 있어, 전주천을 따라 간단히(30분) 도보순례 할 수 있는 이 지역은 가히 최고 최적의 순례코스라 할 수 있다.

이미 당국의 협조를 얻어 입구에 큰 잔디광장(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하천 부지를 매립, 대 주차장(300평) 공사를 서두르고 있으며 숲속엔 작은 사제관도 하나 지어 관리 지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산을 가꾸고 자연을 일궈 사랑스런 대 성지로 꾸며 나가기에 세월만큼이나 오래고도 벅찬 노력과 정성, 희생과 맘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하여 우선, 무심히 오르내리던 산행길 보수와 나무이식, 꽃길 조성 등에 우리 교우들의 정성스런 손길과 합심 협력을 구하고 싶다. 각 본당, 단체들이 술선해서 조금씩만 맘을 흘려주면 보다 아름답고 아늑한 순례길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 고장 축복의 성지에 사랑스런 「개미역사」의 또 다른 풍경을 빌어 본다.
순교자 성월에……

〈치명자산 순례자 지도신부 김봉희〉

교구·제 단체 소식

1. 사회복지월례미사 : 9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2. 사제 성령묵상회 : 9월 1일(월)~5일(금), 나바위 피정의 집
3. 푸른군대 일일피정 : 9월 4일(목), 오전 10시, 덕진성당
4. M.E 68차 주말 : 9월 5일(금)~7일(일), 천호 피정의 집
5. 성모기사회 월례모임 : 9월 6일(토), 오전 10시, 효자동성당
6. 가톨릭 문우회 모임 : 9월 6일(토), 오후 3시, 가톨릭 센터
7. 60주년 신앙대회 본당 대표모임 : 9월 7일(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8. 레지오 마리에 3차 토론대회 : 9월 6일(토), 오후 3시, 전동성당 교육관
9. 중·고등학생 성가 경연대회 : 9월 7일(일), 오전 9시, 윤호관
10. 순교정신 함양 도보 성지 순례 : 9월 7일(일), 오전 10시 시청앞 출발, 점심 각자 준비, 신청 - 교구청 성소국 (0652) 85-0041
11. 치명자산 순례자 위한 미사 : 매일 오전 10시 30분(월요일 제외)
12. 기억할 사제 : 9월 2일, 강원식(베네딕도) 신부, 27주기
오기순(알베르토) 신부, 4주기
13. 주소변경 : 정성만 신부 (우) 404-260 인천시 서구 금곡동 사서함 1-9호
해병 청룡성당 ☎ (032) 563-5055

전주교구 설립 60주년 기념 음악극 「남이시여 사랑이시여」 공연일정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9월 6일 후 7시	남원 준향 문예회관	9월 20일 후 4시, 7시	군산 시민회관	9월 26일 후 4시, 7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9월 7일 후 7시	정읍사예술회관	9월 21일 후 4시, 7시	익산 숨리 문예회관	9월 27일 후 4시, 7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김종구 내과 의원

(심장, 소화기, 류마티스 내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원내전문의 김 종 구(스테파노)
백 화 연(올리에따)
전동 행복복지장 건너편
동양한의원 2층
☎ 88-5874

제일건강원

포도즙 및 모든 과일즙
흑염소, 붕어즙 등 한약다림
김 봉 주(베드로)
송 정 이(젬 마)
효자동 신광빌딩장, 제일여객 옆
☎ 223-5596

씨에 프랑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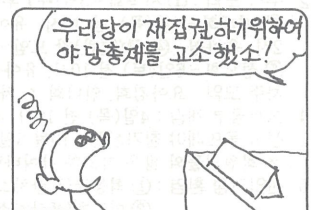
유럽 및 세계 전문 여행사
유럽 배낭여행
〈여행 상담을 환영합니다〉
조 중 자(베로니카)
덕진광장 앞 서울의원 2층
☎ 72-3335 FAX 72-3065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0550

요십이 (1255) 김병오



여직원 구함

인원 : 0명
자격 : 영세한지 만 1년이상,
고졸이상 만 23세미만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접수처 : 가톨릭센터내 농민회
문의 : 전주교구 가톨릭농민회
☎ (0652) 85-4205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알타리, 열무, 백김치,
훈산 갓김치, 깍두기
재래식품 - 된장, 간장, 고추장
전화로 주문 배달
☎ 군산 (0654) 452-4939
익산 (0653) 52-5300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기쁨과 사랑과 자유로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 모임 안내 : ① 구역반장회 - 3일(수) 전 10시
② 사목회 상임위원회 - 5일(금) 후 8시
③ 레지오 꾸리아 - 7일(주일) 교중미사 후
- 성가대 야유회 : 오늘 장수 방화동 계곡에서 있음.
- 성화의 달 : 9월은 삼천 제2구역 성화의 달임.
- 예비신자 교리 : 매주 주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음.
- 성시간 : 4일(목) 저녁미사 중에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사무실에 위령미사 봉헌 바람.
- 성서 교실 : 성서 40주간 출애굽기 그룹성서 신청받고 있음.
- 소망함 설치 : 기도요청, 건의사항, 충고의 말을 부탁드립니다.
- 순교자 성월 : 성지 비디오 테이프 시청, 성지책자 읽기
- 학생 미사 : 매주 토요일 어린이 미사 4시, 중고생미사 6시.
- 주일 미사 : 빠지지 말고 봉헌합니다.
- 특별 헌금 : 금주 봉헌자 - 2명, 70,000원
- 금주 전례 : 해설 - 김 철, 독서 - 한연수(아오스딩) 부부
봉헌 - 이정수(암브로시오) 가정
- 차주 전례 : 해설 - 박종구, 독서 - 변대현(사도요한) 부부
봉헌 - 안명화(안젤라)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570,080원 □ 교무금 : 2,072,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웅

- ◎ 9월은 순교자 성월! : 순교자들의 굳은 신앙심을 이어받아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됩시다.
- ◎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줄정미"를 전달합니다!
- 금주 모임 : ① 방주회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청년공동체 모임 - 저녁미사 후, 4회의실
 - 주간 모임 : ① 사목회 - 3일(수) 후 8시, 2회의실
② 제대회 - 4일(목) 전 10시, 유아실 ③ 빈첸시오회 - 4일(목) 후 2시, 유아실 ④ 구역(반)장 모임 - 5일(금) 후 2시, 지하성당
⑤ 성모회 - 6일(토) 전 10시, 유아실
 - 차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 * 차주 - 빈첸시오회미 납부일
 - 성서공부 개강 : 4일(목) 전 10시, 4회의실, 많은 참석 바람
 - 전국 울트레아 참가신청 : 10월 5일(일), 울림피복원 1체육관
* 회원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바람, 회비 - 20,000원
 - 전입가정 환영 : ① 최동규(프란치스코) T. 71-5197, 쌍용A 601-503
② 이길호(프란치스코) T. 72-8003, 10구 3번
③ 이상만(아오스딩) T. 75-6805, 선수촌A 101-708
 - 성당부지 헌금 신입 감사! : 익명 50만, 익명 10만, 임분순 50만, 최병석 30만, 한금심 30만, 익명 5만 누계 - 262,815,000원(448세대)
 - 독서 : 금주(새벽) - ① 김학수 ② 김순덕, 차주 - ① 김종인 ② 이매란
금주(공식) - ① 김주관 ② 송경희, 차주 - ① 김형식 ② 이정님
 - 미사 안내 : 금주-영원한 도움의 어머니Pr., 차주-겸손하신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763,650원 □ 교무금 : 2,020,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 주님, 당신 장막에 묵음이 누구오리까?
- ◎ 새 성전 신축위한 목주기도 봉헌 : 소제 - 2,344단
누계 - 517,805단
- ◎ 성당 비품 은인을 구합니다 :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모임 : ①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울트레아 - 오늘 공식미사 후
③ 제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교리교사 피정 : 30일~31일 * 교리교사들을 위해 기도바람.
- 초등부 교리 시작 :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 중·고 성가경연대회 : 다음주일, 윤호관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 미리 신청바랍니다.
- 금주 전례 : 해설 - 광명실, 독서 - 하진호 ② 이현주
- 차주 전례 : 해설 - 김종성, 독서 - ① 황금석 ② 이수자
- 청소 봉사 : 1구역 전례

□ 지난주 봉헌금 : 853,560원 □ 교무금 : 1,200,000원

회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 주님, 당신 장막에 묵음이 누구오리까!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 사무실
- ◎ 새로 전입해 오신 가정이나 쉬었다가 나오신 가정에서 신축헌금 신입이 아직 안된 가정은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반 보급활동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① 오늘 - 대구 내당동
② 9월 6일(토)~7일(일) - 광주 학운동, 농성동, 염주동
 - 사제 성령 묵상회 : 9월 1일(월)~5일(금)
이 기간 동안 말씀의 전례 있음
 - 성가 연습 : 2일(화) 후 8시
 - 성시간 : 5일(금) 후 7시 30분
 - 사목회 : 6일(토) 후 7시 30분
 - 차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구역(반)장 회의 - 낮미사 후
③ 중고학생 성가 경연대회 - 윤호관
 - 청소 봉사 : 9월 6일(토) - 평화의 모후Pr.
 - 폐품 정리 : 9월 6일(토) - 예언자의 모후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 금주 전례 : 새벽 - 광순옥, 낮 - 이영숙, 저녁 - 김영중
 - 차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최정순, 저녁 - 정인자

□ 지난주 봉헌금 : 1,018,270원 □ 교무금 : 1,733,000원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보좌신부 223-3823 수 녀 원 223-3822 보좌신부 권 완 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선

- ◎ 독서의 계절입니다. 성서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 미사 시간 변경 : 9월 1일부터 시행 * 주일과 토요일은 변동 없음.
월 - 전 6시, 화 - 전 7시, 수 - 전 6시, 목 - 전 6시, 금 - 전 6시, 전 10시
 - 구역봉사가자 1일피정 : 9월 3일(수), 전 9시 30분~후 5시, 본당 교육관, 준비물 - 성가책, 목주, 필기도구, 대상 - 구역장, 반장, 총무
 - 금주 모임 : ① 전례해설단 모임 - 31일(일) 10시미사 후
② 성체봉사자 모임 - 9월 2일(화) 전 11시 ③ 성모기사회 - 9월 6일(토) 전 10시 4. 차주 모임 : 성모회 - 10일(수) 전 11시
 - 사제 성령채신 묵상회 : 9월 1일~5일, 나바위 피정의 집
* 신부님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의 전례만 있음(9월 1일은 새벽미사 있음)
 - 금주 성서 통독안내 : 신약복음 - 고린토전서 7. "내 친구들"과 "생활서서"가 9월호가 나왔습니다. : 많은 구독 바랍니다.
 -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순교 현양금 "님이시여 사랑이시여" :
* 많은 관심 바랍니다. 회원권은 사무실에 있음
 -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 봉사 : 황제A 구역
 - 전입교우 환영 : 황옥순(마리아) - 개나리A 12-503 T. 224-7162
서봉님(요한) - 효자동 1가 578-6 T. 223-8588
 - 본당발전 헌금 : 이희형(요한) - 일실만,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329,990원 □ 교무금 : 2,544,000원

호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김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완

- ◎ 성전 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제 - 3,335단,
누계 - 786,205단
- 금주 모임 : ① 요세회 -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저녁미사 후
③ 여성분과회 - 5일(금) 10시미사 후
 - 추석 합동미사 예물접수 : 먼저가신 선영을 위하여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 미납된 신축 헌금은 속히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주 모임 : 천주의 모친Cu., 신학생 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
자모, 성모, 성심회
 - 금주 전례 : 해설 - 이종표, 독서 - ① 정병태 ② 김춘애
봉헌 안내 - 정영환, 최영남 부부
 - 차주 전례 : 해설 - 이진숙, 독서 - ① 민병환 ② 이기순
봉헌 안내 - 유병환, 김성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718,650원 □ 교무금 : 3,274,000원